

MTBE, 지하수 · 토양 오염실태 조사

환경부, 2004년 3월부터 기초작업 실시 ...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확인

휘발유 첨가제인 MTBE(Methyl-tertiary Butyl Ether)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가 3월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2004년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을 서울,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유소 등 유류 저장시설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 표본을 채취해 MTBE 오염 분포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분석방법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월11일 밝혔다.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염확산 방지방안을 마련기로 했다.

MTBE는 휘발유의 불완전 연소를 줄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무연 휘발유에 첨가되는 물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됐으며 국내에서는 1993년 도입됐지만 최근 동물 대상 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체에 대한 발암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지도 않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유류 누출 시 인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돼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12>